

전자현미경으로나 볼수 있는 0.1 μm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관도를 휩쓴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찬 새 출발의 그 설레임과 벅참을 순식간에 앗아가며 2020년에는 숨막히는 봄이 찾아왔다.

만사람의 축복속에 정든 배움터를 떠나야 할 아이들의 귀중한 하루마저, 새 책가방 달랑 메고 배움의 꽃대문에 들어서는 첫 등교길마저 매섭게 차단하며...

그렇게 《새 출발》을 떼야 했던것은 비단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올해 3월 조선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북은 흑가이도로부터 남은 규슈까지 민족교육의 현장으로 달려간 사랑하는 내 제자들의 새 출발 또한 여느해와 다른 것이었다.

《초급부 2학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 떨립니다.》

《말은 잘 안 듣지만 학생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여느해 4월이면 이런 소식이 날아올텐데 올봄의 소식은

《하루빨리 학생들을 보고싶습니다.》

10년, 20년을 달려온 《선수》들에게도 처음으로 교단에 선 그날의 애뜻한 추억은 초심과 함께 잊을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올해 《신임교원》들에게는 수십쌍의 맑은 눈동자들을 마주하며 길고도 짧은 첫 45분수업을 치르는 그런 긴장과 두근거림마저 과분한 일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감상》에 빠져있을 시간도, 락담할 시간도 차례지 않았다.

온라인수업!

일본각지의 학교선생님들이 사랑하는 학생들의 배움에 빈 시간,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고군분투하며 발신하는 한 강의 10분간의 온라인수업.

아직은 학생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신임교원이기는 하지만 교육자된 책임과 자세에서는 선배교원들에게 뒤질수 없다며 밤새껏 수업영상을 만들고 설화를 넣어 편집하며 수업에 출연하고있다. 국어, 산수, 일본어...

어느날 나는 어느 오사카의 초급학교에서 사업하게 된 제자의 온라인수업을 보게 되었다.

내 입가에는 절로 웃음이 피어났다.

《어머니, 왜 그래요?》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역시 조선대학 입학날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막내딸이 다가오며 화면을 들여다본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상상해보세요. 이 꽃은 봄에 피는 꽃입니다. 잎은 톱날모양인,, 데 꽃은 노랑입니다, 날이 지나면 머리가 하얗집니다...》

전자교과서 새 교재 동요 《민들레》의 표상을 안겨주는 이끌기수업이다.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도 그리운 그 목소리는 제자의 모습과 함께 수업에 기울인 성실한 노력과 정열을 그대로 전해주는듯 하였다.

어찌 제자들뿐이라. 일본각지의 선생님들이 다 그러하시다.

말이 쉽지 10 분간의 온라인수업에 얼마나 많은 품과 고심이 깃들게 되는지 아마도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밤새 찍고 편집하여 보내온 《국어수업》 동영상을 《검열》하여 《수정과제》를 제기할 때 또 밤을 꿰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안타깝다. 선생님들은 우리 말 표현 하나, 띄어쓰기 하나 잘못 썼다고 휴일날에도 《완벽한》수업을 찍으려 학교로 나가신다. 자그마한 《흙》도 용납할세라...

오직 학생들을 위하여, 보수도 명예도 바람이 없이 남모르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헌신적이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이역의 찬바람을 맞받아나가는 땀땀한 조선사람으로 자라나며 우리 학부모님들과 동포들은 마스크도 소독액도 스스로 우리 학교와 동포들을 위해 바치시는것이 아닌가.

제 살 궁리에만 바빠 마스크 《사재기》에 장사진을 이루고 조선유치원아이들의 생명의 안전보다 수십장 마스크의 무게가 더 나가는 어지러운 일본사회에서 참된 조선사람들을 키우려면 총련조직과 일군, 동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미래에 대한 책임과 량심과 헌신으로 뭉친 힘!! 이것이 0.1 μm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기는 유일한 《특효약》이 아닌가.

어느덧 제 스승들의 온라인수업의 세계에로 끌려들어간 딸이 혼자 중얼거린다.

《오랜만에 선생님들의 수업을 받고싶어.》

나도 제자들앞에 항상 부끄럼없는 스승이 될수 있게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산다.